

인권을 위한 노력 사례

(가) 1894년 제1차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도 여전히 차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제는 호적에 짐승 잡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 앞에 도한(屠漢)이라고 표기하거나 이름 앞에 붉은 점을 찍어 기록하는 등 여전히 차별이 진행되었다.

1920년대 백정으로 차별 받고 있었던 사람의 수는 무려 40만 명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차별을 받으며 사람 아닌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다. 1923년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진주 백정 이학찬은 이를 해결하고자 경남 진주에서 조선형평사(朝鮮衡平社)를 조직한다.

조선형평사 설립 취지문을 통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평함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자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 없다.”

자선사업 등을 통하여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이학찬은 백정 마을을 찾아가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호소하며 형평사를 결성하는데 성공한다. 야학 운동도 병행하며 한글 읽기와 쓰기, 일반 상식, 기초적인 한자 교육, 풍기문란 금지, 근검절약 등을 내세우며 대성황을 이룬다.

또한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더불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과의 협력 속에서 형평사는 147개의 지사와 7,691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해 나간다.

1930년대 초에 관청의 호적이나 학적부에 기록되었던 백정 신분 표시가 공식적으로 철폐되고 백정 아이들의 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나) 1852년부터 동료들과 함께 여권신장 운동에 참여하였다. 노예제 반대운동에서도 활약하였는데, 1861년까지 '미국노예제반대협회'의 뉴욕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여성 참정권과 기혼여성의 재산권을 옹호하는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얻어 뉴욕주 의회에 법 개정을 청원하였다. 또한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뉴욕 근로여성협회를 조직하였다.

그녀는 1872년 11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수정헌법 제15조는 인종에 따른 참정권 부여를 금지하며 흑인 남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으나,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녀는 재판에 회부되어 1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전국여성참정권협회(1869~1890)와 미국여성참정권협회(1890~1906)에서 활동하며 여성 참정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자신의 활동을 기록한 <여성참정권의 역사 The History of Woman Suffrage>를 4권으로 나눠 출판했다. 탁월한 사회운동 조직가였던 그녀는 1888년에는 국제여성협의회를 조직했고, 1904년에는 국제여성참정권동맹을 결성하며 여성참정권 운동의 지변을 확대하였다. 1906년 그녀는 여성 참정권 허용을 끝내 보지 못한 채 86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마침내 그녀가 사망한 지 14년 뒤인 1920년 마침내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뒤 48년 만의 성과였다. 이 때문에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제19조는 '수전 B. 앤서니 조항'이라고도 불린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사회운동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며, 1979년 미국 정부는 그녀의 초상이 새겨진 기념 주화를 만들었다.

(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홀로 콜카타의 빈민 거리로 나선 1940년대 후반 인도는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마침내 200여년 간의 영국 지배를 벗어난 인도는 사회는 불안정했고 인도 거리 어디를 가나 난민들이 넘쳐흘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굶주림과 병마 속에서 죽어갔다.

맨 처음 5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작했던 테레사 수녀의 봉사는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수녀회 부속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녀를 도왔고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는 후원자들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병든 사람들을 간호하고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으며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집을 지었다.

미혼모와 고아들을 위한 집이 만들어지고 나병환자들이 모여 재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마을이 생겼다.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반신반의하며 바라보았던 가톨릭 교단도, 인도 정부도 그녀의 헌신적인 봉사와 박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처에서 그녀를 돕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들기 시작했고 테레사 수녀를 중심으로 1950년 '사랑의 선교 수녀회'가 결성되고 후원 단체도 생겼다.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를 마더 테레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가톨릭 교단과 교황도 그녀의 활동을 지지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기부금이 모아졌다. 많은 유명인사들이 테레사 수녀를 만나기 위해 인도를 방문했고 그때마다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았다. 테레사 수녀는 언제나 한결같았다. 들어오는 기부금은 통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고 본인은 다 남아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흰색 사리 하나만을 걸친 채 나병 환자를 씻기고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런 그녀를 지켜본 세계인들은 테레사 수녀를 살아 있는 성녀라고 불렀다. 그러나 정작 테레사 수녀 본인은 그 같은 세계적 찬사에 무덤덤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돌보아야 할 사람을 돌볼 뿐이라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테레사 수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시상식에도 평소와 같이 흰색 사리와 늘 신는 샌들 차림이었다. 그녀는 상금을 받으면서 '이 돈으로 빵을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다. 그녀는 이 상금을 콜카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두 썼고 시상식 만찬을 거부하고 그 비용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라)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이 나온 지 1세기가 지났지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의 처지는 사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특히 남부에서 흑인은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백인들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백인들과는 다른 학교를 다녀야 했고, 공공장소에서는 백인들로부터 따로 서 있어야 했다. 버스를 탈 때는 뒷문을 이용해야 했고, 공원의 수도꼭지는 백인과 흑인용이 구별되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흑인들 사이에도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기 시작했다.

로자 파크스가 살던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도 오랫동안 버스 좌석이 흑백으로 나뉘어 있었다. 1955년 12월 1일, 한 버스에 올라탄 로자 파크스는 백인만 앉을 수 있는 맨 앞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운전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옮기라고 말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로자 파크스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다.

때마침 흑인 인권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던 시점에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곳곳에서 로자 파크스의 행동을 지지하고 흑백 차별의 철폐를 외치는 시위와 항의가 잇달았다. 몽고메리 거주 흑인들은 젊은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지도 아래 '시내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흑인들이 시내버스 타기를 거부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시내와 교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방영되었다.

미국흑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흑인 민권운동가들이 로자 파크스 사건을 법의 심판대로 끌고 갔다. 이 미묘한 사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1년 후 버스 내에서의 흑백 구별이 잘못된 법이라고 선고했다. 흑인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지금까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인종 차별의 벽이 자신들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노력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끈 마틴루터 킹 목사가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떠올랐고, 그를 중심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 신장 운동의 거센 물결이 일어 흑인의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 모든 것이 로자 파크스라는 한 여인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개인의 작은 용기가 때로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뒤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권 노력 사례에 대해 분석하기

1. 위의 참고자료 속 인물들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노력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결과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적어 보자.

1) 노력한 이유 :

(가) _____

(나) _____

(다) _____

(라) _____

2) 노력의 결과:

(가) _____

(나) _____

(다) _____

(라) _____

2. 글 A, B를 비교해서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A	B
원스턴 씨는 영국 사람. 그에게는 알라오라는 친구가 있어. 알라오는 아프리카 사람. 원스턴 씨는 의사이고, 그의 친구 알라오는 농부라네. 원스턴 씨는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 주지.	원스턴은 영국 사람. 그에게는 알라오라는 친구가 있어. 알라오는 나이지리아 사람. 원스턴은 내과 의사이고, 알라오는 농부라네. 원스턴은 알라오가 아플 때 돌봐주고, 알라오는 원스턴에게 먹거리를 보내 준다네. 그들은 정말 좋은 친구이지. 그들은 서로 감사하며 산다네.

1) 위의 두 글에서 서로 다른 표현을 찾아 봅시다.

2) A글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3) B글은 인간 존중 정신을 담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